

배포 2024. 3. 20.(수) 보도시점

(인터넷)2024. 3. 20.(수) 부총리 브리핑 시작 시

(지면)2024. 3. 20.(수) 부총리 브리핑 시작 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82%—경인 18% 배정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1639명> <361명>

-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용자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였다.

*^①인구 천 명당 의사 수(23년) :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23년) :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하였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되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하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언급하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주요 묻고답하기(Q&A)

【별첨】2025학년도 의과대학별 정원배정 결과

담당 부서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정자 (044-203-6830)
		담당자	사무관	조진행 (044-203-6916)
			사무관	박기남 (044-203-6836)
			주무관	정우식 (044-203-6917)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진상인 (044-202-2431)

| 붙임 |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주요 Q&A

Q1. 의대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지난 2월 22일에 학교에 이미 안내한 바 있는 배정원칙*을 토대로 마련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 배정원칙 ①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②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③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하였습니다.

* ①인구 천명당 의사수(23년) 서울 3.61명(OECD 평균^{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23년)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 다음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이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Q2. 서울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일부대학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역차별은 아닌지?

- '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하였고,
 -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하였습니다.
 -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또한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하였습니다.

Q3.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3대 핵심 배정기준 및 배정범위

- ①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 수도권-비수도권 약 2:8 비율 배정
- ②소규모 의과대학 ⇒ 80~120명, 가능한 최소수준(100명 이상) 확보
- ③지역·필수의료 지원 ⇒ ①권역책임의료기관, 총정원 200명까지 확대
②중규모 의대, 총정원 120~150명 수준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했습니다.
 -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습니다.
 -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결과 지역 의료인력 확보 위해 지역 경험 축적 기회 제공 필요

- ▶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전문의 수련 지역과 지역 근무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음

「의사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22.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① 출신지역 비수도권 광역시·도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2.33배, 2.43배 ↑
- ② 의대 졸업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2.12배, 2.01배 ↑
- ③ 전문의 수련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12.41배, 5.94배 ↑

- ※ 국가별 의대정원」 영국^{221명}.미국^{146명}.독일^{243명}.일본^{116명}, 4개 국가 평균 정원 약 182명, 우리나라와 인구편차가 적은 영국과 독일은 의대별 평균 정원 232명

Q4. 배정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항목은 있었는지?

-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습니다.
- 또한 담당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습니다.
-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양식에 포함된
 -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해
 -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배정규모를 정했습니다.

Q5.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용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